

만남

특집 2023 선교대회

11

2023

통권 597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감사와 기쁨의 11월 되게 하소서 김운성

특별기고 추수감사절

04 늘 길어도 다함 없는 감사의 샘 한기채

04



18

특집 2023 선교대회

- 08 소멸 위기 농어촌교회 지속적 기도·후원 질실 최영호
- 10 네팔 선교사 비자 늦어져 한국 못 올 뻔 손두상
- 12 이곳에 귀하지 않은 삶은 없다 노윤곤
- 14 창작 뮤지컬 '구레네 시몬' 승민성
- 16 한국 와서 처음 알게 된 하나님 팜티프영탄
- 18 연합과 수고로 일하시는 주님 홍용희

땅끝까지 이르러

- 20 하나님의 브라질 선교 목만수·나경애
- 24 캄보디아 포이펏 단기 의료선교 후기 임대현
- 27 캄보디아 간증문 임세진

교회표어

말씀 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만남

2023년 11월호 통권 597호



27

다음세대

- 30 청년의료선교팀을 소개합니다 이윤범
- 32 난 찬양하는 ‘리틀스타’ 조하임

아픔의 우물가

- 34 35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의 품 인 미
- 36 교회는 나의 내면의 성찰을 돕는 곳 황태영
- 38 폐광촌 교회 ‘안전한 예배’부터 간구 이순옥
- 39 어느 예배자의 기도

영락의 울타리

- 40 ‘작은 영락’ 대학부 소중한 기억 빼곡 장대성
- 42 신·구약 통독 후 내 신앙에 확신 박동현

문화광장

- 46 아빠, 이런 여행 어때? 최한윤
- 48 생명의 면류관 서동희

교회소식

- 49 우리 교회 전도사 9명 목사 임직식 거행 외
- 52 미술과 사랑의 메시지...교회 배너서 영감 정재원
- 53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11월 목회력

- 03 금 • 연합권찰모임,
전도의 바람 특별금요기도회
- 04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5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0 금 • 전도의 바람 특별금요기도회
- 12 주일 • 한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 13~18 •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 17 금 • 전도의 바람 특별금요기도회
- 19 주일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
- 26 주일 • 교회창립 기념음악예배,
사회봉사주일

표지설명

“추수의 계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감사의 시간.”
11월호에서는 감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의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해 보세요.

감사와 기쁨의 11월 되게 하소서

김 운 성 위임목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어려서부터 제법 발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큼지막한 어른용 털신을 사 주셨습니다. 학교에 신고 가서 신발장에 넣었는데, 제 신을 보신 담임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큼지막해서 편하겠다고 하시면서 교무실에 오가실 때 제 신을 신곤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이어서 선생님 발이 학생인 저보다 작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발이 더 많이 자라 270센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이 둘이나 되니, 뛰고 걸으며 잘 살았습니다. 물론 늘 두 발은 아니지요. 소포클레스의 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스프링크스의 수수께끼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끼일 때는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후부터

인생의 대부분을 두 발로 걷습니다.

이처럼 두 발로 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언젠가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했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발이 아파서 서기도, 걷기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산에 많이 다녀 발을 너무 혹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세워 주고 걷게 해 준 발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발에 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 면적은 우리 몸 전체 표면적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리 크지 않은 두 발바닥이 수십 년이나 온몸을 지탱하며 서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나이 들면 지팡이를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함께 사는 사랑 더욱 절실
소중한 이들 전도하고 서로 지탱해주는 발이 되길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한 발만 주셨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 있기도, 이동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보다 두 발이 낫습니다. 그리고 약해지면 두 발에 지팡이를 보태 세 발이 되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인생을 세우는 데도 발이 여럿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발 하나로 서는 것처럼 인생을 혼자 서려고 애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의지하여 세울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둘보다 셋이, 셋보다 넷이 좋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1인 세대가 증가하고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외로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혼자 살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둥이 하나인 집보다 둘인 집이 안전하고, 둘보다 셋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솔정(鼎)’자는 다리가 세 개인 솥을 의미합니다. 안정감의 상징이지요. 우리 곁에 함께 의지하고 설 사람들,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발이 되어 줄 사람들이 많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는 깊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심령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복수이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최고로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함께 할 사람들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들과 함께 기쁨의 삶으로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말씀따라 전도행진> 주제로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도는 우리와 함께 천국에까지 걸음을 옮길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또 하나의 발이 되어 더 안정감 있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 겹줄이 되고, 세 겹줄이 되고, 더 많은 다발이 되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며 행복하게 살길 기원합니다. **만남**



늘 길어도 다함 없는 감사의 샘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 신자들에 의해 시작된 명절로서, 구약의 초막절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한국의 추석 이상으로 성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감사했던 신대륙의 청교도들

1620년 11월, 미국 북동부 플리머스 연안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상륙한 100명 남짓한 청교도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50여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들로부터 옥수수 농사법을 배워서 다음 해(1621년)에 처음으로 추수를 했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퍼드의 제안에 따라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623년에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 명절로 선포하면서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1789년 11월 26일에는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진 것이 현재의 날짜입니다. 한국교회도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했습니다. 현재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 길어내는 마중물

청교도들이 처음 드린 감사절은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담임

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길어내도 길어내도 다함이 없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길어내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에 하나씩 간직하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마저 감사한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의 수필 “삼 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첫날은 스승 설리번과 친구들을 만나 산책을 하며 저녁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장엄한 일출, 아침 이슬,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상에 바쁜 사람들의 얼굴, 여성들의 옷 색깔, 외국인의 생활상을 보고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일이면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들을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삼 일 동안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헬렌 켈러는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체적 장애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바랐던 것들은 이미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로마



서에서 인류의 타락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로마서 1:21)라고 경고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에덴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부터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부족할 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해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가정의 행복, 사업의 성공, 꿈의 성취는 분명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저 거기에 머문다면 ‘일차원의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은 가변적이어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언제 다시 한숨과 불평으로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늘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는 삶의 부피를 풍요롭게 하는 생명과 사명,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아름다움과 미움을 가려내는 정서,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시련을 이길 용기와 소망,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소중함, 즐겁고 향긋한 봄철, 뜨겁고 활기찬 여름, 단풍 진 수확의 가을, 백설의 순결한 겨울 등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철학자, 문학과,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인생 예찬이나 자연 예찬에 지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것들도 소진하게 될 날이 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 두기엔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원의 감사’라 부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삼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 말하면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은혜에도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믿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얻는 새 생명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하박국 3:17-18) 했습니다. 감사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펌프에 붓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불러들입니다. 감사는 내부에서 터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통로입니다. 결국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행은 불행해지는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소망의 행위이고 도전의 행위입니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감사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곧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라는 감격은 우리를 ‘은혜받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고민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삶의 목적과 자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루하루 은혜에 응답하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



2023 선교대회 “말씀 따라 증거하라”

우리는 선교의 마음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열정과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진 ‘2023 선교대회’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한 기억을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멸 위기 농어촌교회 지속적 기도·후원 절실



인구 감소,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선교는 복음 전파와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균형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선교부는 농어촌 교회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이사야 43:12 ‘말씀따라 증거하라’)를 통해 우리 교회의 농어촌 교회 선교 현황과 전략을 성도님들께 알리며, 계속된 관심,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17개 교회에 年 1억3300만원 지원

선교부는 매월 1,110만원의 지원을 통해 17개의 농어촌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씩 1여전도회 회장단과 함께 17개 교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주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여전도회와 남선교회)가 섬기는 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도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농어촌교회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선교부에서는 이를 자체 검토하고 방문하여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 지원 전략입니다.

영적 성장·지역 균형 발전 위해 꼭 필요

농어촌 교회는 대체로 출석 인원이 10명 내외이며, 70세 이상 고령자가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방법,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생산한 농수산특산물을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경작을 돕기 위해 농기계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1여전도회는 경남 산청의 부곡교회에 콤바인을 지원했습니다. **(사진)** 도시와 다르게 농어촌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교회 출석이 어려우며, 교통편도 편리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교회에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찬양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작년 6월에는 1여전도회에서 충남 보령의 남포신흥교회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요청이 많으므로 기도와 후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자양육·예배당 보수 등 시급한 사역 많아

대다수 농어촌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교회로 전도폭발 훈련팀을 보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영적 생활을 더욱 깊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어촌 교회에 제자양육 프로그램과 필요한 자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은 성경공부와 신앙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재를 제작하지 못하고 유인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목회자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등 건립...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도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농어촌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1여전도회에서 진주의 초원교회에 교육관을 헌당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브릿지 미니스트리 국제학교를 확장하여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 및 비전 제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해 준 교회가 궁급하다고 한 이곳 학생들을 초청하여 지난 6월에는 1박 2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지내며 교류하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안학교가 농어촌 교회 청소년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복음화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기

를 기대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성도님들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안해 봅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등과의 위탁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을 돕고,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농어촌 교회 지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성전 건축에 대한 농어촌 교회의 열망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농어촌 교회가 70~80년대에 건립되어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시설을 현대화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노력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전남 진도의 지산교회(제적 37명, 출석 15~25명)의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지산교회는 김대영 목사님이 3년 전에 부임한 이후 1억 원의 건축 헌금을 모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통해 진도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보살피고 지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영락교회와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만남**



최영호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 농어촌팀장



선교 특강할 네팔 선교사 비자 늦어져 한국 못 올 뻔 - 선교대회를 마치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영락교회는 중국 중심의 선교 방침이 20여 개 있다. 예를 들어 1) 중국의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 확대 2) 중국 기반에서 아시아 전체로 선교 지경 확대 3) 현지 지도자 양성을 통한 선교 활동 지속 및 다른 선교지로 확장이 그것이다.

2013년부터 중국은 시진핑 지도하에 노골적으로 종교 탄압했고, 힌두교 중심의 인도 정부와 일부 이슬람 지역에서도 기독교 탄압 및 감시를 점차 강화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영락교회의 해외 선교 방향도 재검토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 위임목사님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4년 해외선교 계획도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전도와 선교 훈련을 진행하여 그들을 현지 선교사로 파송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선교대회도 해외선교 특강 강사 선택을 고심하던 중, 인도에서 신학공부를 마친 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아세안연합신학대학(ACTS)에서 영락교회의 장학금을 받으며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네팔 레크미 선교사님을 떠올렸다. 레크미 선교사님은 영락교회 외국어 예배부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신 후 네팔로 귀국하여 아난타쿠쉬(네팔 영락교회)교회를 개척하여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레크미 선교사님에게 선교대회 특강의 주제로 '현지인 선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안하며 강사로 초청했다.



손두상 안수집사
강남교구
선교부 해외선교 차장

10월 9일 출발 항공편 예약...강의는 12일

이러한 과정 중에 생각만 해도 떨리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까지 해외 여행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네팔은 지금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권과 항공 티켓만으로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다. 영락교회가 보내야 할 서류로는 초청장, 신원보증 서류, 숙박 관련 서류,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과 공증을 갖추어야 했으며, 네팔 현지에서도 이것저것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한국행 비자는 13일이나 발급된다니 '깜깜'

9월 11일 한국에서 준비하여 발송한 서류를 9월 19일에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월요일에 비자 관련 서류를 예약 접수한 후, 한 주 지난 월요일에 직접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월요일인 9월 25일에 예약하려고 하니 한국 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었다. 그 다음 주 10월 2일에 예약하면 10월 9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4~5일 후인 10월 13일경에 비자가 발급된다. 그러나 이미 10월 9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이고, 선교대회 브로슈어에는 10월 12일에 해외특강 강사로 이미 기재해 놓은 상황이므로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급행비자 겨우 얻어 선교대회 차질없이 진행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상황이 아니었지만, 「급행비자」 신청을 시도해 보았다. 몇 차례 어려움을 겪으며 외교부 지원으로 9월 26일 비자를 신청한 후, 10월 4일 레크미 선교사님과 가족 3명 모두 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쁨의 순간을 만끽한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인 내가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표준 절차를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외치면 그만인가? 이 과정에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과 좋았지만 일처리 과정 돌아보는 계기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 선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기뻐했던 이 결과가 과연 옳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결과는 좋았어도 과정에 문제가 있는 행위였는지는 성도님들 각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어쨌든 10월 10일에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으며, 10월 12일 선교특강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해외선교부를 섬기면서 이번 선교대회 준비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의 작은 수고는 결국은 영락교회의 선교대회라는 큰 사업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소소한 퍼즐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레크미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초청하는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기를 바란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교대회의 후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만남**



이곳에 귀하지 않은 삶은 없다

“대광초 4학년 우리반 급훈입니다”



학원선교대회가 있는 주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베다니광장에서 보성학원, 영락학원, 대광학원의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각 학교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특별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대광학원은 “敬天愛人(경천애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을 만들고, 민족 복음화와 믿음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도 대광학원의 선생님들은 기독교

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이자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아름다운 동행 꿈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미래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랑의 실천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우리반의 급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곳에 귀하지 않은 삶은 없다’로 정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힘들고 기쁨 있는 순간을 함께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이며 사람



노윤곤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대광초 교사

됨이라고 믿습니다. 학생의 삶, 부모님의 삶, 그리고 교사의 삶은 모두 중요하며, 그렇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눔과 배려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가정에서의 나눔과 배려가 어릴 때부터 체험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눔과 배려가 일상의 습관처럼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나중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눔과 배려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누지 못함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학원선교 주일 찬양예배에서 곽상학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라는 말씀은 교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인지를 상기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음세대와 함께 꿈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소중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13~14)

고난과 역경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시기에, 기독교 교사들은 마치 “새 그릇에 소금

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모범을 배우고 그와 같이 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사, 세상의 빛과 소금 돼야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위로하는 삶의 열정을 품은 신규교사로 교단에 섰지만, 어느새 자신의 안락과 안위에만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증거하며 살겠다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도 우리의 본모습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여, 민족 복음화와 믿음의 일꾼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사이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함께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전파한다면, 정직하게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보람과 희망의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귀하지 않은 삶은 없다!” 모든 생명은 귀하며,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당당하게, 말씀 따라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사랑의 벽돌 한 장 한 장임을 잊지 말고, 믿음의 대표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교육하고 보듬어야 하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담은 그릇들이 아름답게 큰 빛을 발하여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사입니다! **만남**



‘구레네 시몬’이 진 주님 십자가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자리



선교대회 오프닝 창작뮤지컬 ‘구레네 시몬’

2023년 선교대회를 여는 공연을 기획하면서 우리 시대가 당면한 선교에 관한 고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지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특별한 인물이다. 그 누구도 쳐 보지 못한 예수

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지고 걸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시간을 통해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믿음의 대를 이어준 인물...우리가 따를 길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았으며,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대략 70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해안 마을에서 아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그의 생업은 농사나 어부로 생계를 영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아들 중 특히 루포라는 이름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시몬의 믿음이 크게 변화하고 이 믿음이 그의 아



승민성 집사
인천교구
선교부 문화선교

내와 아들 루포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몬에게서 루포에게로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것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지켜며 살아가는 더욱 힘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와 어른, 그리고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걸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걷던 시몬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갈기갈기 찢긴 상처와 흐르는 피, 고통과 죽음의 길을 마다치 않고 스스로 걸으셨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지 않고 직접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을 이어갔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2023년 선교대회 문화공연 ‘구레네 시몬’은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힘들 때마다 베푸시는 기쁨과 감동 어찌 큰지

이번 ‘구레네 시몬’ 뮤지컬은 창작 작품으로, 공연은 40~50분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극작부터 음악, 안무, 무대 제작, 분장, 의상/소품, 배우들의 연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준비하는 동안은 많은 인내가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무겁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다.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며 이끌어 주심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과 감사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이러한 감동이 문화선교 공연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한다.

“내 십자가를 전할 자여”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한 문화선교는 놀라운 일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선교인들의 비전과 열정이 극대화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비전을 품은 문화선교 인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손을 모아 기도하며 기대한다.

“내 십자가를 전할 자여” 하나님은 시몬을 자신의 십자가 자리에 부르셨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던 ‘십자가의 자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영광의 자리’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이 자리는 우리가 당연히 걸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전해’라고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제는 세상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어야 할 때이다. **만남**



한국 와서 처음 알게 된 하나님 내 기도예 모두 응답해주신 분

- 베트남 출신 유학생 팜티프영탄의 고백



저는 올해 24세이며 베트남에서 온 팜티프영탄입니다. 5년 전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교회를 소개해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 준 자매님을 만났죠. 그 자매님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제 소망을 듣고, 영락교회 베트남 예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팜티프영탄
베트남어 예배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많은 것 경험

영락교회에서는 규옥투안 전도사님, 유혜정 권사님, 김종욱 집사님과 여러 형제자매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모두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업과 관련된 문제로 힘들었지만,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권사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



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이 여전히 도전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에 관한 소망과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예배 드리며 더 큰 헌신 꿈꿔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교회의 선교대회의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영락한글자랑대회>에 참여하여 5등상을 받았는데,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베다니광장에서 진행된 <외국어예배팀 특송> 행사에서 6개국 출신의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사진) 저희는

베트남어로 찬양을 부르며 '영락교회 베트남 예배'를 소개했습니다. 모국어로 찬양하는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선교대회 기간 중 모든 국가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고, 다양한 나라의 형제자매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고, 그 덕에 금방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와 베트남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예배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학업과 진로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연합과 수고로 일하시는 주님



2023 여전도회 선교바자회를 마치며

가을 한복판에서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시점에 우리는 선교 바자회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작은 헌신이지만 선교 목적 건축헌금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락 마당에서 아름다운 잔치 선교 바자회를 준비했다. 바자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사진)에 이어 각 교구 목사님의 기도로 바자회를 시작했다. 1여전도회 6지회(강서·

구로·양천)는 기증받은 옷, 액세서리, 생활용품, 건어물을 판매하기로 했다. 바자회의 즐거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대량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전남 진도 지산교회 건축을 위해 전액 쓰여진다는 점이다.

옷·액세서리·생활용품·건어물 박리다매

첫째 날(10월 11일)에는 기증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당장 내일 판매할 물품이 부족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날(10월 13일)에 오히려 더 많은 기증품이 들어왔다. 일 년 동안 기도하며 손뜨개로 200여 개의 수세미를 만들어 기증해주신 성도님도 계시고, 친지분의 자녀가 인터넷 판매 중에 폐업하면서 남은 주방용품 상자 여러 개를 기증해주신 성도님도 계셨다.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현금만 내주



홍용희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 기회였다.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며 판매에 열정을 쏟는 지회 임원들과 지회원들은 지쳐가면서도 한 마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건어물 판매에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했으나, 저렴한 물건을 박리다매 방식으로 판매한 생활용품, 옷, 액세서리 등의 판매 수익이 더 큰 것을 보며, 주님은 계산된 이익이 아니라 연합과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드린 작은 헌신 주님 받으셨음 확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합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번 선교 바자회 경험을 돌아보며, 유월절 예



루살렘 성전에 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갔던 그 마음처럼, 가끔은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선교 바자회에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교대회와 선교 바자회를 순조롭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린다. **만남**



이우끼아스 결혼(홀로리아노교회)

B r a z i l

해 외 선 교

한치 오차도 없었다 하나님의 브라질 선교

1987년 9월 26일, 김포 공항을 떠나 브라질의 홀로리아노(Floriano)로 향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평생 처음 한국을 떠났으나, 아는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떠나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한 것 같다.

“브라질로 떠나라” 해외선교 특명 주신 하나님

선교지에 도착하니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후 딸이 땡기에 걸려 헛소리하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조그마한 도시이다 보니, 260Km 떨어진 큰 도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도중 죽을 것 같아 이동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매일을 보냈다. 사경을 헤매던 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 후에도 5년 이상 후유증으로 시달렸다. 설상가상 심한 피부병으로 온 다리의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어서 흘린 피고름으

로 이불 시트가 깨끗한 날이 없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전 술집으로 사용하다 문 닫은 장소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천주교가 아주 강세인 지역이라, 처음에는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도전이 많았다. 다소 두렵기도 했지만, 곧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곳에서 사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주민들은 언제나 마음 놓고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다.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백여 명이 넘는 시절이어서, 10대 처녀들에게 밥만 먹여줘도 농장 주인의 첩 노릇을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사택에서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자, 교인이 점차 많아졌다.



2019년 어린이날

선교의 주인되신 주님 모든 일을 함께하셔

청년 5명이 첫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중 주앙은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원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지 모른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마태복음 28:18~2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첫 세례를 집례한 날 밤, 감격과 흥분으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목회자 3명과 장로 5명을 배출했다. 뒤이어, 브라질 장로교단의 캠퍼스(Campus) 목사님도 후임으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선교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을 함께하시고 축복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쏟았다. 때로는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했다.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첫사랑의 선교지를 떠났다. 오늘 죽어도 아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사명이 아직 있었다.

첫 선교지의 성공...주님은 또 다른 사명 예비

첫 선교지가 좋았다. 선교를 위해 치르는 대가가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냥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싶었다. 그래서 순교하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고, 혹시 내가 이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나를 MTC라는 신학교로 부임하게 보내주셨다. 이곳은 선교 비전을 품은 사람들만을 위한 신학교이다. 4년의 공부를 마치면 3개월 동안 본부에서 공동 생활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1년 동안 영어 연수를 받게 된다. 졸업 후에는 선교지로 파송한다. 우리 졸업생은 주로 회교권이나 힌두교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나 같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잠비크, 기네비잘, 앙골라, 동티몰, 그리고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나는 문화인류학을 강의하며, 신학생들에게 교과서가 필요할 것 같아 책을 저술했다. 이미 서구 선교학자들의 책 번역본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한계를 느꼈기에 브라질 문화와 선교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용을 구성했다. 그 책을 출판하고 얼마 후, 상파울루에

서 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1,300명의 선교사가 참석했는데 내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강의 중이라 선교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교무처장인 스코틀랜드 선교사 까리나(Karina)가 참 좋은 소식이라며 전화로 전해주었다.

지금도 브라질의 여러 신학교와 선교사 지망생들이 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교재를 집필하는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매일 세숫대야에 피를 쏟으면서 힘들게 마친 작업이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무사히 집필을 마쳤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로 나를 붙잡히 여기신 것 외에는...

선교의 주인은 성령...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신학교를 그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자문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학장인 호세루랑 목사님께 내 뜻을 전했다. 학장님은 일 년만 더 머물며 봉사하길 바랐고,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일 년을 더 봉사했다.

일 년이 지난 후, 성령께서 다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학장님에게 새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나의 뜻을 전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학장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나는 신학교를 바로 사임하고 새로운 선교지로 떠났다. 모든 선교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새로운 도시 벨로리존찌로 사역지를 옮긴 후, 브라질

장로교의 노회장인 카시우 목사님과 함께 약 1년 반 동안 개척할 부지를 찾아보았다. 3번째 선교지인 이 도시에서의 부지 구매 자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부지를 계속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 목사님에게서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다. 한 권사님이 선교지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5만 불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보낸다고 했다. 그 덕분에 교회, 교육관, 사택 등으로 사용할 전망이 좋고 미래가 있는 장소를 구입했다. 그 부지의 가치는 다음 해에 약 30% 상승했다.

간혹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교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과 청년 부부인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많이 했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갱신원도 운영했다. 교회가 성장하자 카시우 목사님이 소개해주신 부교역자 마르크스 목사님과 함께한 사역이 특히 인상 깊었다. 마르크스 목사님은 걸인에 대한 애정이 특별해 길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집으로 데리고 와 목욕을 시켜주고 아침 식사를 잘 대접하고, 버스값을 주어 고향에 돌아 가게 하는 일을 사모와 함께 기쁨으로 봉사하는 귀한 목회자였다.

어느 날, 마르크스 목사님이 본인이 교회를 담임하면 좋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추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여 조만간 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파울루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 주셨다. 정말 주님의 계획과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길은 높으며 깊고 넓다. (이사야 55:8~9)



빌라쁘르텐찌 예배

네번째 선교지 상파울루의 기적

상파울루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곳이 4번째 선교지다. 브라질에서 한국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왠지 신기한 한편, 오랜 세월을 한국인과 멀리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소급해서 몰려오는 듯했다.

상파울루로 이주하여 개척할 선교지역을 찾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빌라쁘르텐찌(Vila Prudente)라는 빈민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마약 갭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지역 곳곳에서 마약 갭단이 워키토키(walkie-talkie) 무전기로 연락하고 있거나 혹은 권총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회장 시두(Cido)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약 갭단 두목과 절친한 친구이다. 그래서 그가 마약 갭단에게 우리의 선교활동을 좋게 이야기 해주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선교의 기반이 세워져 가는 것 같다. 때를 맞추어 영락교회에서 보내준 후원으로 예배당(1층)과 다문화센터(2층, 3층) 건축이 올해 말경 완공할 예정이다.

빈곤·마약·척박한 환경서 필요한 은혜 허락

이곳의 아이들은 영·유아때부터 집안이나 길에서, 아무 때나 마약을 복용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 조그만 일로 서로 다투다 입버릇처럼 충으

로 쏘아 죽인다고 하는데, 집에 총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오랫동안 예배 시간 전에 집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말이 예배지 예배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데 온 신경을 다 쏟아야 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 이제는 예배드리며 싸우는 아이들을 거의 볼 수 없다. 교회에 나오는 주민들은 예배가 좋아서 나온다고 하며 새신자 반에 등록한다. 앞으로 이곳에 현지인 일꾼이 세워질 것이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사랑, 희생, 그 마음으로 어디든 섬기면 주님은 기적을 만드신다.

남은 삶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

올해 말 은퇴한다. 그간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부족한 사람이 홀로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큰 사랑 잊을 수 없다. 은퇴 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브라질에서 계속 사역하려고 한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사도행전 20:24) 고백한 사도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만남**

목만수/나경애 선교사 _ 브라질



Cambodia

의 료 선 교

청년 대거 참여한 54명 선교팀 진료·문화·밥퍼...빈민촌 보듬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추석 기간 중 의료선교부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의 이기원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기원 선교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소속이며, 2014년 12월 21일에 캄보디아로 파송되었습니다.

다. 현재도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후원하는 협동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카지노 도시인 포이펫의 인구는 약 10만명입니다. 태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강변에는 약 650가구의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 빈민가 중심에 'Love Miracle Poipet' 비전 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기원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밥퍼 사역, 교육 사업과 세종학당, 그리고 포이펫 길거리에서의 빵 나눔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현 안수집사
15지회(성남분당)
인하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료선교부 차장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노원일 집사의 지도하에 “나의 피난처 예수”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주일예배 특송을 준비했다

빵굽고 머릿니 없애주고 위로의 사역

이번 포이펫 의료선교는 다양한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용준 목사님, 최성준 부장 장로님, 그리고 주지운 담당 권사님을 비롯한 총 54명의 구성원이 참여했습니다. 진료 부문에서는 의사팀, 치과팀, 약제팀, 간호팀이 구성되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약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기도로 위로를 주는 기도 사역팀, 티셔츠 나누기/풍선불기/팝콘 튀기기/팔빙수 만들기/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문화 사역팀, 매일 빵을 만들어서 생수와 함께 길거리 사람들에게 나누는 빵 사역팀,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생활 사역팀, 아이들의 머리를 머릿니 제거제로 삼푸해주는 머릿니 사역팀 등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모든 단원이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을 크메르어로 부르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찬양사역도 했습니다.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우기임에도 비 그쳐

비가 내리는 우기의 캄보디아에서 날씨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도착하기까지 엄청난 비가 계속 내렸고, 머무는 기간의 일기 예보도 비가 올 확률이 80%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진료 등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던 비전센터 근처도 큰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물에 잠기게 되면, 빈민촌 사람들은 넘치는 빗물을 피해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하며 노숙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이펫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쳤습니다. 밤 11시 즈음 숙소에도 도착했을 때에는 숙소 앞 도로가 20cm 가량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긴 도로는 밤사이 빠르게 마르면서 첫날의 모든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날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 박용준 목사와 기도팀은 의료팀을 방문한 캄보디아 스님들에게도 기도해 드렸다 2 치과팀에서 치과의사 김가영 권사를 중심으로 진료했다
3 이기원 선교사님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4 생활팀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기도·의료·길거리 사역 등 청년들 함께 힘 보태

이번 포이펏 의료선교에서는 많은 사역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사역 324명, 외과 25명(수술 20명), 내과 194명, 초음파 11명, 이비인후과 61명, 치과 123명, 소아과 178명, 약제 투약 환자 414명, 빈혈 검사 6명, 혈당 검사 137명, 수액 주사 9명, 접수 661명, 티셔츠 284개, 풍선 750개, 팔빙수 673개, 팝콘 711개, 길거리 빵 사역 1,800개, 머릿니 사역 244명. 이 모든 사역에는 11명(임세진, 이재란, 안예은, 김현구, 성민정, 김찬미, 임준하, 이현아, 이은진, 신지훈, 조하현)의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

과 감동을 장년 선교팀원들과 나누며, 모든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늘 단기 의료선교를 위한 기도와 격려로 저희를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선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신 총무 이호준 집사님과 회계 최인성 권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남**



머릿니 사역팀에서 첫째날 120명, 둘째날 124명의 어린이에게 머릿니 제거제로 샴푸해주고 있다



문성미 권사의 후원물품인 티셔츠(네팔)를 주일 예배 후 빈민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포이펏에서 배운 주님 은혜

포이펏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해 봅니다. 벌써 포이펏을 다녀온 지 2주가 흘렀는데, 아직도 그곳에서의 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난·범죄·중노동에 내몰린 희망 없는 아이들

저는 선발대원으로 먼저 그곳 포이펏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기대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말리꽃향기 가득한 꽃팔찌 선물과 함께 이기원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방과 핸드폰 관련한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땅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둑, 윤락, 마약 등 여러 문제가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방치 하에 6시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앵벌이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께서서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빙수 만들어주고 머리 감겨주며 마음 울컥

센터에 도착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저마다 손을 내밀길래, 하이파이브를 원하는 줄 알고



임세진 성도
청년부(문화사역팀)



이기원 선교사의 러브미라클포이벳 센터에서 매일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었다. 사진은 밥퍼 사역 이우석 영화감독

손을 내밀었더니, 아이들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손 잡고 빈민촌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물에 잠긴 흠바닥과 어디가 입구 인지 모를 정도로 허술한 판잣집들 사이에서 포이벳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세 아이와 함께했는데, 그중 한 아이는 시계를 두 개나 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선교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의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센터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명만이라도”… 훨씬 많은 아이와 인연

첫날에 의료사역의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아픈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던 현지어는 이름 묻기, 숫자 세기, 그리고 ‘안녕하세요’ 뿐이었기에 아이들이 대답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계속되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0살의 사엘 선생님, 21살의 프랏테이, 그리고 16살의 수다윈 통역사분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함께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문화 사역 중에 팔빙수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감아 주기도 했는데, 분주한 상황이 지속되어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힘껏 도와 주신 현지 교장 선생님과 주민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단원들의 모습에 감동하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팔빙수를 만들면서도 직접 먹어보지 못하고 땀만 흘렸지만, 아이들이 한 손에는 풍선을 다른 한 손에는 팔빙수 그릇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밥과 빵을 나눠주는 밥퍼 사역과 빵 사역 때에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밥과 빵, 물을 나눠줄 때, 손을 모아 먹을 것들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중에는 받은 음식을 바로 먹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는 아이들에게 저도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 이곳에도 하



직접 빵을 만들고 정수기(제2남선교회에서 지난달 설치)로 생수를 준비해, 매일 빵 600개와 생수 600개를 길거리에서 나눠주었다

나눔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3일의 짧은 기간에 이 아이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마, 락하... 이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단 5명의 아이 이름만이라도 기억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엘 선생님, 프랏테이, 수다윈, 리리, 쓰랄리움, 평라, 락하, 리만, 나라, 썸리, 리샤. 이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겠습니다.

지인들이 선교 갔던 이유를 물어보실 때, 제 마음속에는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녀왔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은 어디에나 있으니, 네가 그 사랑을 나누며 받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만남**



질병 치료하고, 영혼 살리고... 청년의료선교팀이 갑니다

청년의료선교팀은 영락교회 청년회 활동부서 중 하나로 2022년 청년부 하기선교 활동 후에 시작되었다. 이런 팀이 교회에 생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였다. 나는 영락교회 청년부 77대 회장단에서 해외선교부 부장을, 아내는 차장을 맡았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해외선교부에서 함께 섬겼다.

제44차 하기선교를 준비하던 도중, 당시 회장인 박종훈 회장이 내게 다가와, “형, 의료선교 봉사팀이 생겼는데, 팀원들이 영락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니, 역할

을 맡으면 모두 부담을 느낄 것 같아. 형이 ‘팀장’으로 섬겨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 의료선교 봉사팀은 하기선교 4박 5일 일정 중 이틀만 섬기면 된다고 했다. 하기선교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정도라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제안이 마치 하나님의 부름처럼 느껴져서 뭔가 모르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의료 사각지대 찾아가며 선교봉사

하기선교에서 청년부가 1박 2일 동안 의료선교를 섬긴 후,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하기선교의 의료봉사팀이 일시적이라며, 청년회 내에 ‘청년의료선교팀’을 상설부서로 만들어서 의료선교부와 연계해 계속 활동해주길 바란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청지기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로써 청년의료선교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윤범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의료선교팀장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의료선교부에서는 청년의료선교팀 창설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경오 장로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와닿는다. “윤범·지선 부부가 의료선교팀에 참가한 것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 청년 회원들이 청년부 활동을 마치면 영락교회의 큰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나 역시 평소에 생각하곤 했다. 그러던 중에 청년 의료인들이 청년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 연결고리로 의료선교부에서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 가득한 기쁨으로 팀장직을 섬기고 있다.

청년의료선교팀은 이런 활동을 해요

(1) ‘올프렌즈’와 함께하는 이주민 의료선교봉사(매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유학생,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영락교회 의료선교부는 매월 셋째 주에 사단법인 올프렌즈와 함께 의료선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봉사 활동에는 비의료진은 접수, 동행, 준비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의료진은 간단한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청년의료선교팀이 시작되고 나서, 매달 약 5명의 청년이 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 해외 의료선교봉사 참여(상·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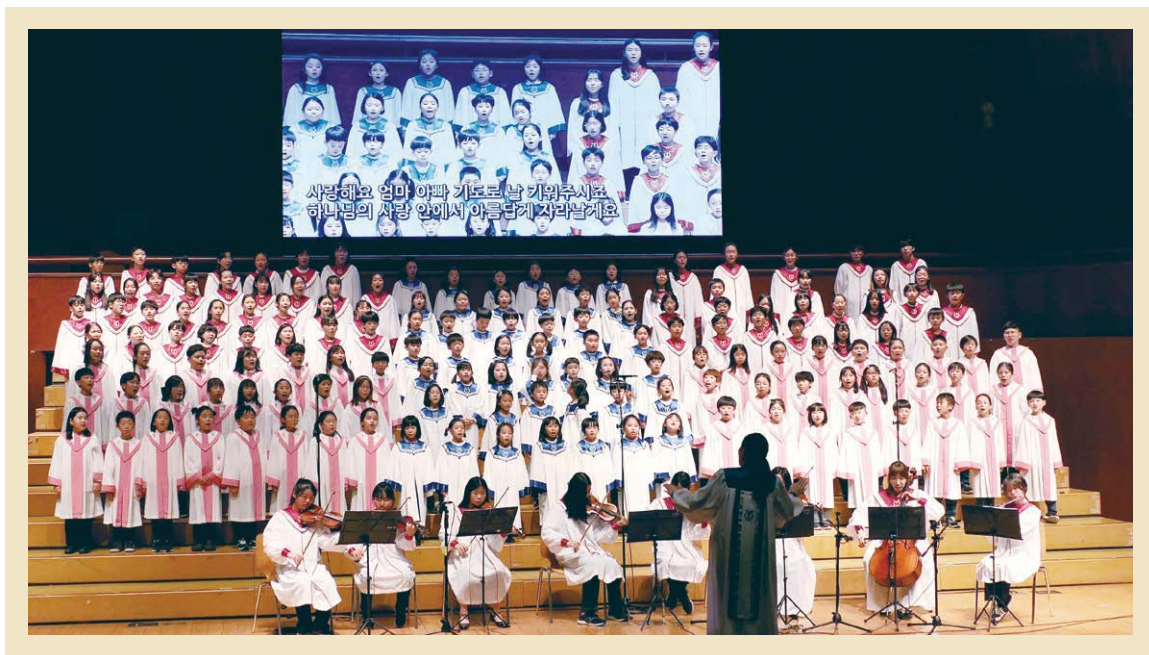
의료선교부는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영락교회의 파송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해외 의료선교 봉사를 진행한다.

2023년에는 설 연휴 때 필리핀에서 김춘자 선교사와 함께 활동을 펼쳤고, 추석 연휴에는 캄보디아에서 이기원 선교사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청년 의료전문가들이 해외 의료선교 봉사를 통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의료선교부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선배님들의 헌신을 보며 청년들이 꾸준한 신앙 성장을 이루길 기도한다.

(3) 청년부 하기선교봉사(매년 8월)

매년 청년부에서 주최하는 하기선교에서 의료선교봉사는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된다. 비의료진은 행정과 지원 업무로 섬기고, 의료진(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상담심리사)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섬긴다. 이 의료선교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드리게 되는데, 의료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도폭발팀이 복음을 제시한다. 이렇게 의료봉사와 선교가 서로 협력하며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청년의료선교팀에 대해 특별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 모든 인생 단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영원한 어린아이도, 영원한 학생도, 영원한 청년도 없다. 우리는 영락교회에서 양육 받으며 성장하는 교육부서를 지나 마침내 청년회를 졸업하게 된다. 그 순간,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길처럼, 우리도 영락교회의 다양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의료선교팀이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에는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과 지원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남**



“난 찬양하는 ‘리틀스타’...솔로도 하고 싶어요”

엄마가 ‘리틀스타’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었다. 그런데 엄마가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아동부(유년부·초등부·소년부)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연습했다.

가사 외우는 건 어렵지만 찬양시간 너무 재밌어

연습할 때 찬양 가사를 외우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조하임
유년2부

노래를 많이 부르면 목이 아픈곤 했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내 목소리가 점점 예쁘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힘들어도 버티고 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언제나 즐거웠고, 선생님들의 반주와 지휘에 맞추어 찬양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리틀스타의 마지막 연습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설렘고 기대가 됐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 틀릴까 봐 걱정도 됐고, 사람들이 조금 오실까 봐 불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공연 때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도 했다.

드디어 리틀스타 공연 날이 되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마음이 설렘. 교회에서 연습하는 시간에 배고플까봐 밥을 많이 먹고 교회에 갔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년부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베다니홀에 들어갔다.

찬양하니까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리허설할 때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나보다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예쁜 것 같아서 나도 예쁘게 잘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무대로 올라갔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무서움과 기대하는 마음이 섞여서 웃음이 나왔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무대에 올라서니까 긴장이 안 됐다. 그런데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다.

찬양하는 동안에 솔로로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다음에는 솔로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찬양하



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찬양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힘들어도 잘 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학년이 되는 내년에도 리틀스타에 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싶다. **만남**

주최 영락교회 교육부

주관 영락교회 중등부

SING to the LORD

중등부 찬양대 정기연주회

영락교회 베다니홀
2023.11.12(주일) 찬양 예배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35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의 품 “지난 시절 가난, 돌아보니 축복”



배승규 성도(종로·성북교구)

"사실, 과거의 부족과 가난은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경 덕분에 술이나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아서 친구는 많지 않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다고 느껴져요. 자칫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못 살았다 할 수도 있겠죠. 제 일생의 대부분은 운전하며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늘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것은 큰 감사의 기회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청계천을 따라 자전거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30년간 전국을 고속버스기사로 무사고 운전하던 제가 은퇴한지 1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 입사한 동료와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갑작스럽게 영락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락교회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원치 않더라고요.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한두번이지... 정말! 그래서 그곳에는 못 가고 이곳에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말에 귀가 번쩍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골교회에 다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1살 때부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일을 하느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청년시절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드렸지만, 이후 여의치않아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 편은 항상 교회마당에서 살고 싶다는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처를 물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는 한달이 지난 당시에도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며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시절 떠났던 교회 앞마당 마침내 발 디디

2022년 4월 5일. 교회를 떠난지 35년 만에 교회의 마당에 발을 들였 놓은 순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50세가 넘어갈 때, 제 삶에 관해 깊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건가...’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최근의 부정적인 교회 뉴스들로 인해 결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시내

에 있는 두 교회를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교회 일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던 중, 점심 식사 후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찬양의 멜로디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선교관을 찾아갔더니 금요일직장인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참석을 권유받아 앉게 되었고, 큰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앉아보니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3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요일직장인예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건 운전 달란트뿐...결혼질 않고 직진

저는 35살의 젊은 날부터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25년 6개월 21일 동안, 끊임없이 전국을 무사고로 달렸어요. 항상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운전하며, 저의 운전기술과 정성으로 거의 모든 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고속버스회사로부터 제 성실함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다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선택이 돈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부름과 같습니다. 운전 중 겪은 여러 기적적인 경험들 때문에 항상 ‘언제까지 더 이렇게 살아야 예배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돈보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환경미화직원 배승규 성도입니다”

2023년 5월, 저는 본당 2부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서는 주일



에 근무하는 모든 교회직원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셨다고 들었지만,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주저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배 후, 바로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운 시절, 항상 곁에 일하고 두 딸을 성실히 양육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제 두 딸도 결혼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제 소망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도 함께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더라도, 교회의 어느 부서에서든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영락교회에서 근무하는 배승규 성도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신 성도의 오른쪽 가슴의 <미화원 배.승.규>라는 이름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승규 성도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지만, 주일에는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5시 반부터 교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작업 중에도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만남**

취재 인미기자



고독에 갇힌 고3때 교회로 이끄신 담임선생님

‘고독, 불안, 공허’ 고3이 되던 해 2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앞의 세 가지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나의 존재가 사라져가는 듯했다. 몇 주간 병원을 전전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다음날에 무사히 눈을 뜬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을 정도였



황태영 성도
동대문·중랑교구

교회는 나의 내면의 성찰을 돕는 곳

다. 그 와중에 당시 나의 담임선생님 정일형 안수집사(동대문·중랑교구)께서 다가와 주셨고 선생님을 따라 매주 교회를 따라나섰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 보자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학원 수업을 모두 그만두었다. 단지 매일 학교를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셨는데 매주 주말마다 교회를 같이 나가자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수락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그 당시에 너무나 무료했기에 제안을 수락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매주 이른 아침 준비하고 교회에 나가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종교적 분위기에 어색하여 힘들었던 거 같다. 힘든 와중에 내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교회의 고요함이었다. 예전부터 나는 고요함을 즐겼는데 교회에서의 고요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닌 지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갔다. 교회에 익숙해져 새가족 수료과정을 수강해 수료했다, 이로써 나는 교회에 교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교회의 고요 즐기며 내면의 소리 듣게 돼

질병 등으로 인해 막막한 현실에 갇히려 고통받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권



하고 싶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거부감이 있는 이가 많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기 전 내가 그랬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나의 내면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속의 고요, 그리고 잔잔한 찬송가는 나의 내면을 마주할 환경을 만들어주며, 목사님의 말씀 또한 나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준다. 현대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내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앗아가 버렸다. 힘든 와중에도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단순한 쾌락 거리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힘들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나를 한번 봐달라고 손짓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내면에게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는 길목에서 교회는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힘들다는 건 내면의 구조 신호...교회가 힘될 것

‘인간은 불안을 직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한다.’ 이는 한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구절이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회피하려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불안을 직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불안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교회는 불안 속에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다. 단지 걸어가 보아라. 교회는 무엇을 원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곳이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다. **만남**

말씀따라 전도행진

2023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11월19일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불어오소서!"**

전도의 바람, 특별 금요기도회



강사 : 남성혁 목사 (장신대 전도학)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3일 오후 8시



강사 : 정명호 목사 (해성교회)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10일 오후 8시



강사 : 김운성 위임목사 (영락교회)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17일 오후 8시

총동원 전도 주일 11월 19일(주일)1-5부

전도의 바람

11월 3, 10, 17일

전도왕 시상



영락교회 | 전도부

쇠락한 폐광촌 교회 ‘안전한 예배’부터 간구

1여전도회 마포·영등포지회, 양양 철산교회 지원



시대적으로도 불안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도전 속에서,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들은 신앙생활까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와 기도 속에서 1여전도회는 선교부와 협력하여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든든히 서도록 돕기 위해 지원할 교회를 일급 교회로 선정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총 18개 지회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67년 전 강원도 탄광촌에 세워

마포·영등포지회는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장승2리 철산교회(윤수길 목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운 당시에는 교회가 탄광촌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광촌이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소수의 노인들만 남겨진 외딴 산골의 고요한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 년 반 전부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로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어 교회 뒷산에 옹벽을 쌓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회 대지권을 소유한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임원과 회원들은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철산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토대로, 새벽기도(5시),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나라와 민족과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등 예배를 우선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윤수길 목사님은 허리 통증을 견디시



면서도 사모와 함께 가가호호를 돌며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마치 자신의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병원까지 모시며 끊임없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새벽기도길. 교회 뒷산 웅벽 쌓게 기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게 된 9지회는 철산교회를 위해 “새벽기도 오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예배 자리가 15명 이상의 성도로 채워지기를, 장승리 마을 주민들에게 구원과 평안이 임하기를, 교회 대지 문제가 해결되어 뒷산에 웅벽을 쌓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만남**



이순옥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어느 예배자의 기도

정갈한 아침
영혼의 방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떨어내고자
그리하여 맑고 고운 마음이 되고자
긴 의자 위, 한 점에 앉는다.
밝은 햇빛은 아직
창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지 않으나
그러나 약간 어둡기 때문에
더욱 고요하다

하루

첫 예배

첫 시간

영롱한 알갱이들로 껏가에 와 닿는 말씀들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이곳이 내 자리

이곳은 언제 와도 내 자리

이곳은 주님의 앞이기에

주여

영원히 정갈하게 하소서

영혼의 방 그 곳에서

청량함을 맛보게 하소서

‘작은 영락’ 대학부 소중한 기억 빼곡

건강한 교회·목자? 다시 꺼낸 물음표



장대성 전도사
대학부

고등부 교사 봉사하다 영락 대학부 섬기기 2년

두 해 전, 이맘때에 모 교회의 고등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염병이 일상이었고, 예배실은 학생보다 교사가 훨씬 많은 주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일 예배가 오전 7시 2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배에 나오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 새벽에는 스무 명 남짓한 20대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 교사들과의 교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아파하며, 이야기하고 고민하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습니다. 한편으로 풀리지 않는 실존의 물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를 대학부로 나아가게 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해 가을, 저는 대학부라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리더 벗님들이 이끌어 가는 주체적 조직

새로운 조직이 본래 그러하지만, 영락교회 대학부는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대학부는 다섯 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마을에는 촌장과 부촌장이라 불리는 지도위원들이 계셨습니다. 또 마을마다 열 명 조금 안 되는 리더가 있는데 이들은 ‘벗님’이라 이름하는 대학부 지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벗님들은 각자의 기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번 해에 스무 살이 된 벗님들은 51기가 됩니다. 아, 저는 39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낯선 까닭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대학부는 교역자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부서나 사역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교역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주체는 리더십을 가진 학생회, 마을 리더, 그리고 사역팀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뉠 수

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토론하며 사역의 내용을 살피우며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2022년 한 해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전임 전도사 되고 나니 시야도 달라지더군요

올해부터는 전임 전도사로 대학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으로 인해 직무뿐 만 아니라 시야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부의 표면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내면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 보니, 보통의 한 주에도 많은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 하나를 진행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대규모 조직이라서, 듣기 좋은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대학부는 분명 작은 영락교회였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침표를 찍어 두었던 제 나름의 교회론에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부가 목회 신학을 형성해 나가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분망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면서, 많은 기억이 마음에 남습니다.

51기 신입생과 함께했던 롯데월드, 기도원에서의 동계 수련회,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올려 드린 특별 예배, 리더들과 보낸 소중한 수련회, 더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진행한 농촌전도봉사활동, 대부분의 벗님이 참여한 하계수련회 등 모든 순간이 기억 속 필름에 칸칸이 채워져 있는 듯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신 방덕중 목사님, 든든한 지원군 김철환·강우주 전도사님, 김종태 부장님을 비롯한 대학부 임원분들, 대학부를 무척 사랑하고 자원하신 108대 HISTORY 학생회, 그리고 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이 계시기에 이런 특별한 한 해가 가능했습니다.

새 리더들과 함께 2024년 새 출항 준비 중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어 미래가 기대됩니다. 대학부는 곧 학생회 총회를 거쳐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2024년 대학부를 섬길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겠지요. 저는 그간의 시행착오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대학부의 새로운 출항을 준비하려 합니다. 대학부의 순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난항을 만날지라도 주의 이끄심을 따라 행진하는 대학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



숲 못보고 나무만...‘겉돌던 말씀’ 신·구약 통독 후 내 신앙에 확신

하나님 향한 40여년 여정, 안수집사 은퇴 앞뒤

20대 후반, 시골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 중구 서소문로의 직장으로 발을 들였다. 퇴근 후에는 친하게 지내는 이가 없어서 자주 거닐던 곳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영락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교회 본당 1, 2층이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요일예배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 후, 교육관 근처 계단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따뜻해 보였다.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시간이 흘러 생각이 현실이 되어 지금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리고 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영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을 읽어도 마치 생쥐가 고구마를 군데 군데 갈아먹듯 읽다 보니 성경의 뜻이 이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물 올리고 포도주로 바꾸신 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어 가신 일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확신도 믿음도 생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 건네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 채 주일 예배만 드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 그저 예배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직장을 은퇴한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깊게 연구하면서 7년 6개월을 보냈다. 성경 공부에만 몰두했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 오랜 세월 확신할 수 없었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며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렇게 깨달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구약성경에는 그림자로 드리워졌던 비밀이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즉 구약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말씀을 깨달았다. 신약성경에서 사도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골로새서 1:26)”라고 기록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희미한 가운데 바라보던 하나님의 경륜(히브리서 11:13)”¹을 신약의 성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일서 1:1)”라고 증거하고 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3:9)”라고

1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 즉 작성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신 것

말한다. 결국 신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

비밀의 경륜 핵심은 예수그리스도였다

구약성경은 각 권에 예시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성경에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설명하셨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25~27)**”. 또 예루살렘에서 열한 사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

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누가복음 24:44~45)” 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전체 알아야 부분도 잘 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조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3)**”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신구약 전체 66권을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성경 일부분만 읽고 그 안의 빛나는 요절 말씀들만 강조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도 왜곡될 위험이 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만 각 요절의 진정한 의미와 성경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심까지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욥기 8:7)”라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표구로 걸고 좋은 의미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을 비난하며 한 말이다. 남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며,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며 이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와 같은 7하원칙을 기억하며 읽어야, 성경의 진정한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끝이 좋은 삶...온유한 사람이고 싶다

서양에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생의 주기 동안 다양한 단계와 변화를 겪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처음에 안 좋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의 유형이 있으나, 나는 인생 후반에 접어든 지금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본성이 죄인이고 이기적이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너희에게 견고하게 하려 함 (로마서 1:11)”이라고 말하였고,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6:26~27)”하며 이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전서 1:6)”라고 강조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제 보다 오늘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은퇴한 후에 맛집을 찾아다니며 이곳저곳 관광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까? 만약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면 “여행하며 즐거웠습니다”라는 대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다.

시편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2)”은 매일이 새로운 교훈과 지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얻는 경험과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그만큼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만큼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게 타인에게 다가가며 더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만남**



박동현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영락교회 사랑부 창립 25주년 기념연극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인기와 화려함에 둘러싸인 연예인,
층층마다 세입자가 가득한 건물주는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출연

조성신 김예은 김도원 안혜성 서창원 김예람 정서빈
최요한 지준원 공성준 박응광 이바희 김용진 강홍비
전미준 이재성 박세은 김민진 최나래

연출 류태선 | 기획 문태선 | 고문 김숙자
의상 김영순 | 소품 문호선 | 분장 정정심 | 미술 심가연
무대 최창호, 심두연, 윤영희, 장자경, 홍성매 | 음악 이은하
조명 로고스 라이브 | 음향 로고스 라이브 | 영상 조수아
안무 한승민, 정혜숙 | 진행 윤수연, 임순화, 박영희
일러스트 김도원

일시 2023. 11. 25.(토) 오후 4시 | 장소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사랑부



아빠, 이런 여행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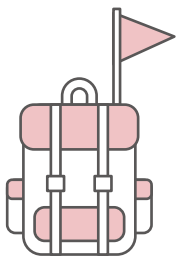


김동욱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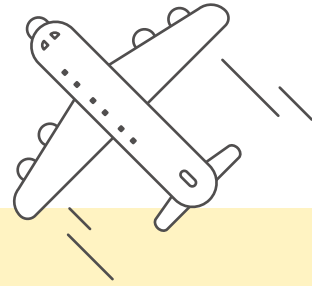
‘여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멋진 여행을 기대하며 준비하지만, 막상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때로는 난감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휴일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시간, 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쉬는 날에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죠?”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와 눈빛에 간절함을 보며 “그럼 가자!” 했습니다. 저의 대답에 아이들은 이미 여행이나 혹은 나들이를 나온 것처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세 아이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빠로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왕이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곳이면 좋겠다는 책임감이 뒤섞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행과 관련된 책을 찾는 중, 『아빠, 이런 여행 언제?』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행 칼럼니스트로, 여행을 직업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밥벌이와는 별개로 가족 여행을 떠날 때에도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쉬다 오는 것을 최고의 여행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여행이 성장하는 자녀에게는 여행을 통해 좋은 기억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여행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한윤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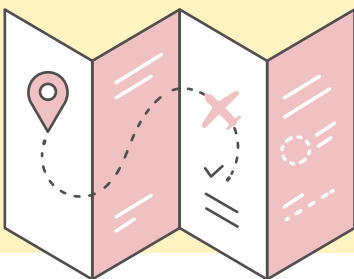


그리고 그 힌트를 아이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볼 순 없나요?’ ‘소리는 왜 잡히지 않나요?’ ‘밤(night)은 왜 무서워요?’와 같은 아이들의 궁금증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의 목표를 장소보다는 풍부한 경험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목적은 저의 고민을 해결하고 좋은 장소와 체험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말과 질문을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여행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저자는 밤(night)이 왜 무서운지를 궁금해하는 자녀에게 ‘밤 여행’을 통해 해결한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별을 사랑하고, 낮과 다름없이 생기 넘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감각적인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과정과 경험을 성취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발견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여행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치 낙엽 더미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작은 도토리처럼, 여행에 대한 감정과 기쁨을 발견하실 겁니다. **만남**

생명의 면류관(The Crown of Life)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교회에 예언된 환란 중 주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에서 착안했다. 2005년에 〈뉴욕 통인갤러리〉에서 전시된 이 작품은 원래 한 개의 유닛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개의 유닛으로 재탄생하여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서울 바이블도자에 술관에서 전시중이다.

이 작품은 점토를 재료로, 슬라이싱 기술을 사용해 철삿줄과 같은 것으로 자르는 성형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 후 건조를 거쳐 약 800℃의 가마에서 1차 소성한 뒤, 『생명의 면류관』의 영원함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위해 아름다운 채색작업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1,040℃ 고온에서 2차 굽는 과정을 거쳐 완료했다.

도예는 ‘불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노력과 인내, 실험을 요구한다. 이 작품에서는 점토에 톱밥을 혼합, 표면을 처리하여 무게를 줄이고 질감 효과를 높이려 노력했다. 또한 3단으로 구성하여 인내와 노력 끝에 얻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상징하고자 했다. 표면 채색에는 스프레이 분무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과 효과를 부여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각자의 신앙과 삶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생명의 면류관(요한계시록 2:10), h 60cm, 도기, 2023



서동희 은퇴권사
성동·광진교구
건국대 도자공예명예교수

우리 교회 전도사 9명 목사 임직식 거행

지난 10월 20일(금) 서울노회의 목사 안수식이 무학교회에서 성대하게 드려졌다.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 대상자 30명 중 9명은 우리 교회의 전도사가 임직 받았다. 이날 새로이 목사 가운을 걸친 목사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각 교구 및 자치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하여 감사와 축복 속에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임직에 배를 드린 후, 노회장 권혁성 목사의 집례로 임직자 소개에 이어 서약, 안수기도, 선포 후 안수증과 임직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의 임직 받은 목사는 김민석(성동·광진교구), 김예성(동대문·중랑교구), 김재훈(강남교구), 권영현(서대문·은평교구), 남



경식(중구·용산교구), 박성민(성남·분당교구), 윤연상(북한선교부), 장민희(새가죽부), 전재량(마포·영등포교구) 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작곡가회, 제15회 창작성가발표회...신곡 9곡 선보여

영락작곡가회(회장 김진수)는 10월 21일(토) 선교관에서 제15회 창작성가발표회를 개최했다. 영락작곡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음악으로 140여 곡의 창작 성가를 발표해 왔다. 발표회는 지휘 장세완 장로, 피아노 임수현과 리틀호산나의 연주로



새로운 성가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발표된 창작 성가곡은 '주께 오라' 외 1곡(작곡가 박성희), '주님의 그 이름을 듣고자' 외 1곡(작곡가 김자현), '주님 우리를 지키시네' (작곡가 백승환), '생물과 같은 보혈' (작곡가 장태승), '베들레헴의 별' (작곡가 김진수), '말씀 따라 행진하리라' (작곡가 홍권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작곡가 박혜원)의 아홉 곡을 발표했다. 특별히 홍권옥(영락작곡가회 전 회장)의 '말씀 따라 행진하리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친근한 고유의 가락을 입힌 국악풍의 성가로 한국적인 정서와 교회 사랑을 예술로 표현하여 음악적 조화를 이루며 감동을 선사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안수집사회, 하반기 LTC 리더십 훈련

안수집사회(회장 강명옥 안수집사)가 상반기 1차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에 이어 하반기 3주간(10/8~10/22)에 걸쳐 2차 LTC 교육을 한경직 목사기념관 및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실시했다. 안수집사회의 임원과 회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알차고 감동 있는 교육일정이 구성되었다.

1주차 제1강 “성격유형 검사와 교회 공동체”에서는 애니어그램/MBT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격유형체제로 각 유형별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2주차 제2강 “한국장로교회 역사와 선교방향”, 제3강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제4강 “Reforming



Church”에서는 장로교회의 역사 속에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3주차 제5강 “세대간 통합과 미래의 교회”, 제6강 “미래 지향적 교회의 리더십과 섬김”에서는 주제 발표 후에 공개 포럼을 통해 현재 당면한 교회의 한계를 넘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공 김국진 안수집사(안수집사회 부회장)

“고난의 길도 인내로 걷습니다” 2023 가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3 가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10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의 여러 교단 목회자 사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여는예배 시간에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

로 채우시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내를 주신다.”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파송예배 시간에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소망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을 궁극의 소망으로 의지하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자.”라며 참석자들을 권면하고 축복했다.

사모 25명의 참석자들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 기도하며,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라며 기회를 제공하고 섬겨주신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2023년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이 모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은 연 4회(2월, 8월 목회자 영성수련 / 5월, 10월 사모 영성수련) 열린다.

제공 영락수련원

사회복지재단,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개최

지난 10월 13일(금) 이촌한강공원 거북죽구장에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지역주민,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수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산구 관계자와 영락사회복지재단 박홍준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풀기 체조를 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라는 구호와 함께 힘차게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안전하게 줄을 맞춰 이동하는 동안 선선한 가을바람과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며 동작대교 반환점을 돌아 2.7km 구간을 모두 완주



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더함_더불어 함께하는’이라는 주제에 맞게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하나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대화섬유 박호전 은퇴안수집사, 올해도 겨울의류 19상자 기부

지난 10월 10일(화) 영락사회복지재단은 대화섬유의 박호전 은퇴안수집사가 겨울의류 19상자(267장)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맞이 선물로 전달해줄길 바라며 기부한다”라고 밝혔다.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박호전 은퇴안수집사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의류를 후원하고 있다. “나눔은 내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홀로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몸도 마음도 따뜻한 선물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다”라고 이웃 사랑을 전했다. 매년 후원을 위해 의류를 추가로 제작해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아 준비하는 박호전 은퇴안수집사님과 직원분들께 영락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술과 사랑의 메시지... 어릴적 본 교회 배너서 영감



미국의 팝아트 작가인 로버트 인디애나는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예술로 표현한다. 대중적인 그의 작품은 일반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LOVE (Blue faces Red sides)'는 어릴 적 교회에서 본 'GOD is LOVE' 배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작품은 1964년에 손 카드 등에 삽화 이미지로 그려서 친구나 동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한다. 이듬해인 1965년에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 크리스마스카드 커버를 의뢰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에는 판화, 회화, 조각, 우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다.

LO는 윗줄에, VE는 아랫줄에 배열한 이 작품은 윗줄의 O를 45도 기울여 배치했고, LVE는 세리프

(serif) 스타일의 글씨체로 디자인했다. 원본 이미지는 선명한 녹색과 파란색을 번갈아 배치한 공간에 빨간색의 굵은 글씨를 인상적으로 나타냈다.

현재 'LOVE' 조각상은 뉴욕 맨해튼을 시작으로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 필라델피아 시청 앞 러브파크뿐만 아니라 서울 명동의 대신증권 신사옥 앞 등 전 세계 50여 군데에 설치하여 미술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LOVE' 이미지를 활용한 본 조각은 1970년 인디애나폴리스에 처음 들어섰고, 1971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설치했던 작품은 이후 55번가 교차로로 옮겨졌으며 팬데믹 기간에 보수를 마치고 2023년 9월 13일 록펠러센터에 재등장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3년 11월호 통권 597호

발행 2023.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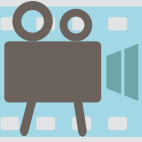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김윤영 류정현 안하운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열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11/5 투 브라더스 (Two Brothers, Deux freres, 2004)

감독: 장 자크 아노 주연: 가이 피어스, 장 클로드 드레퓔스, 프레디 하이모어 상영시간: 1시간 49분

고대 사원의 유적이 남아있는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야생 숲속 한가운데, 호랑이들의 사랑 결실로 두 마리의 쌍둥이 호랑이 형제가 태어난다. 용감하고 씩씩한 빨간색 눈의 쿠말과 겁 많고 소심한 파란색 눈의 상가. 어느 날 사냥꾼 에이든(가이 피어스)이 유적발굴을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숲을 찾게 되면서 쿠말과 상가의 평화롭기만 한 일상은 무너지고 만다.



11/12 굿윌헌팅 (Good Will Hunting, 1997)

감독: 구스 반 산트 주연: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벤 애플렉, 스텔란 스카스가드

상영시간: 2시간 6분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의 재능을 가진 월(맷 데이먼)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닫은 불우한 반항아. 절친인 처키(벤 애플렉)와 어울리는 월의 재능을 알아본 MIT 수학과 램보 교수는 대학 동기인 심리학 교수 손(로빈 윌리엄스)에게 그를 부탁한다. 거칠기만 하던 월은 손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상처를 위로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11/19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 Babettes gæstebud, 1987)

감독: 가브리엘 액셀 주연: 스테판 오드랑, 보딜 크예르, 브리기테 페더슈필, 잘 쿨르

상영시간: 1시간 42분

덴마크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가 있었다.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은 모두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나타난다.



11/26 왕과 나 (The King And I, 1956)

감독: 월터 랭 주연: 데보라 카, 윌 브린너, 리타 모레노, 마틴 벤슨, 테리 손더스

상영시간: 2시간 13분

젊은 미망인 안나는 시암 왕의 초청을 받고 아들 루이와 함께 방콕에 도착하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에게 실망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정숙한 영국 여인 안나는 다소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왕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지내는 동안에 근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시암 왕에게 묘한 애정을 느낀다.



사랑

LOVE(Blue faces Red sides)



▶ 작품 내용은 52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1928~2018

조각(스테인리스 스틸)